광주·전남 창업시장 '女風'

작년말 여사장 8만 6,303명 … 1년새 945명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여성들의 창업과 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도 '여풍'이 거세지고 있다. 또 광주는 동구 충장동과 북구 용봉동이 각각 금융업과 PC방 수에서 전국 상위권에 포진할 만큼 유사업종의 밀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에서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 수는 3만6천798개로, 2005년(3만6천233개)에 비해 565개(1.6%) 늘어났다. 반면 남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5만8천851개로, 1년새 203개(0.3%) 감소하면서 여성의 창업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로 인해 여성 취업자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여성 근로자 수는 18만5천824명으로, 전년보다 6천107명(3.4%)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4%로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19.9%), '숙박 및 음식점업'(16.5%), '교육서비스업'(14.7%) 등이었다.

전남도 여성 사장 및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여성이 대표인 업체는 4만9천505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만9천125개)보다 380개(0.8%) 늘어난 것으로,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7%로, 1년새 0.3%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도 지난해 20만8천662명으로, 전년에 비해 3천367명(1.6%) 늘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4%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9.8%), '교육 서비스업'(13.5%) 등으로 광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는 금융업과 PC방 등 관련 업종의 밀집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전남과 차이를 보였다. 동구 충장동의 경우 102개의 금융업이 밀집돼 서울시 중구 명동(204개) 등 서울지역 4개 동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PC방도 북구 용봉동에 65개가 밀집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80개),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79개) 등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동으로 분류됐다.

한편 지난해 광주는 총 사업체 및 근로자 수가 동반 증가한 반면 전남은 사업체 수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의 사업체는 9만5천649개로, 전년보다 365개(0.4%) 늘었다. 근로자도 1년새 1만306명(2.4%)이 늘어난 43만8천581명에 달하면서 고용시장의 양적인 확대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은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사업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창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의 종사자는 50만8천154명으로, 전년보다 7천238명(1.5%) 늘었다. 반면 사업체는 12만4천573개로, 1년새 501개(0.4%)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11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박 동 필 에너그린 대표

세계 최초 친환경 축전지 개발

전기車· 하이브리드카 적용

2년내 국내 시장 50% 점유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한 '11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 시상식이 6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박 대표 대신 참석한 노남종 에너그린 상무,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한 '11월의 자랑스런 중기인상'을 받은 산업용 니켈수소(MH) 축전지 생산업체 에너그린(주)(광주시 광산구 옥동·대표 박동필)는 대표적인 연구개발(R&D) 투자기업으로 통한다.

지난 2000년 회사설립 이후 석·박사를 포함해 15명의 전담 연구인력을 확보, 2003년 광주 생산기술연구소에 이어 2006년 서울에 신기술 연구소를 설립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공통핵심과제와 부품소재개발과제를 진행 중이다. 또 광주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서울 KIST와 산학연 협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6개의 특허와 4개의 실용신안을 등록했으며, 축전지 선진국가인 일본에 1개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동필(44) 대표는 "또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벤처기업, 환경마크, 신기술인증(NT), ISO 9001, 이노비즈기업 등 다양한 자격을 획득했다"면서 "이런 기술적인 신뢰가 매출증가와 함께 투자유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그린의 대표주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니켈수소 축전지. 이 제품은 수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저장·방출할 수 있는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했으며, 납과 카드뮴 등을 재료로 한 기존 제품과 달리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국내 축전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니켈수소 축전지는 2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용 축전지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나, 2~3년내에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니켈수소 축전지는 골프카 등 소형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카에 적용할 수 있어 매출이 급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상품인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며 "내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60명인 에너그린의 매출은 2005년 43억9천600만원, 2006년 59억7천100만원에 이어 2007년 9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매출은 200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유기농 이유식서

GMO성분 검출

일부 유기농 이유식에서 유전자재조합(GMO)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유기농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유기농'을 표방하는 5개 기업 63개 이유식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3개사 18개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후디스유기농아기밀 2' 1건,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 1건, '트루맘 유기농 닥터' 2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 6개월부터' 2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 9개월부터' 1건, 후디스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등 일동후디스 6품목 9건, 그리고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 3건,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 6개월부터' 2건,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 9개월부터' 2건 등 매일유업 3품목 7건이다.

또 수입품인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토들러조제식'과 '유기농베이비스온니소이인관트조제식' 각 1건 등 파인트리비에이치코리아 제품이 2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GMO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을 중단시켰으며 관련기업들이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설비 관리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가공용 수입쌀, 국내산 둔갑·유통

양곡 관리 구멍…28t 빼돌린 업자 2명 입건

정부가 관리하는 가공용 수입쌀이 외부로 대량 유출돼 국내산 브랜드 쌀로 둔갑·유통된 것이 올해 첫 적발되는 등 양곡관리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주류공장에 납품되는 주정용 가공용 수입쌀(현미)을 몰래 빼돌려 도정한 뒤 국산쌀과 혼합·판매한 운송업자 L씨와 가공업자 S씨 등 2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22일께 전북 모 맥주공장에 납품되는 가공용 수입쌀 28t을 빼돌려 무안군 한 정미소업주 L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정부로부터 가공용 수입쌀 6000t의 출고를 지정받아 광주·전남, 경기도 등 5곳의 정부 양곡관리창고에서 가공용 수입쌀을 운반하던 중 28t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S씨에게 가공용 수입쌀 28t을 구입한 L씨는 도정과정을 거친 가공용 수입쌀 458kg를 국산쌀과 혼합, 브랜드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L씨의 정미소에 보관돼 있던 가공용 수입쌀 27t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가공용 수입쌀은 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쌀 가공식품과 주정업체에게만 배정하는 등 정부가 물량을 관리하고 있고 판매수입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적립돼 농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농민들은 가공용 수입쌀이 수입되기 시작한 뒤 국산 둔갑 유통의 혹을 계속 제기하고 2002년부터 4년 동안 5건 정도가 적발되자 이에 정부는 2005년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 선출 또 연기

상임의원회 10일 개최

오는 15일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공백사태가 3개월을 맞는데도 후임 회장 선출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후임회장 합의추대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일 상임의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회장 공백사태는 자칫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의원회는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과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간 후보단일화를 위해 당사자끼리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일주일간 말미를 주기로 했다.

두 후보는 이번 주중 만났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후보 모두 해외출장 중이며, 주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과 경제계는 "침체일로에 있는 광주경제를 위해서라도 광주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광주상의가 하루빨리 회장 합의추대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태기자 jtlee@

LG패션 '상무프라자' 오픈

닥스·라푸마 등 입점

LG패션이 광주 금남로 시대를 마감하고 상무시대를 열었다.

LG패션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에 'LG패션 상무프라자'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상무프라자는 지난 1988년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영업중이던 '광주프라자'를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상무프라자는 2개 층에 300평 규모의 매장으로 마에스트로, 닥스, 라푸마, 헤지스 등 LG패션의 대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인접한 포켓상권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LG패션 광주지점 허강 차장은 "상무프라자 오픈으로 향후 상무프라자와 세정아울렛을 잇는 인근 대로변이 패션 가두상권으로 재편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 아시아나

베트남에 장학재단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사진)은 6일 "베트남에 외국법인으로는 처음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장학문화재단'을 설립,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문화예술 후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재단은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대우건설, 금호고속, 금호렌터카 등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200만 달러를 기부해 설립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